

두만강 지역의 외국 직접 투자 현황과 잠재적 투자 분야¹⁾

李燦雨 / ERINA 조사연구부 객원연구원

외국 직접 투자 현황

개관

외 국인 투자는 두만강 지역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1998년까지 두만강 지역의 외국인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변자치주와 연해지방이 각각 약 4.5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다.

투자 항목을 보면, 연변자치주는 섬유, 목재 가공, 식품 가공 등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진·선봉과 연해지방에서는 운송, 통신, 호텔, 부동산, 무역 등의 인

프라 서비스 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해지방에서는 목재 가공과 식품 가공 등의 자원 가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하였다. 연변자치주에서는 통신 분야에의 외자 유치가 제한되어 있고,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국 정부가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 분야의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홍콩, 미국 등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나진·선봉에의 한국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연변자치주와 연해지방에서 한국 기업은 주로 섬유 분야에, 일본 기

〈표 1〉 두만강 지역의 외국 직접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85~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 계
연변자치주	42	61	78	134	95	47	457
나진·선봉	1	1	4	31	26	25	88
연해지방	141	2	53	93	95	56	440
합 계	184	64	135	258	216	128	985

자료: UNDP Tumen Secretariat(2000. 1), *Tumen Update*, Issue 2.

1) 이 글은 ERINA(2000. 6), “圖們江地域の外國直接投資の現状と潜在的投資分野”, *ERINA REPORT*, vol. 34, pp. 49~56.을 번역 정리한 것이다.

〈표 2〉 두만강 지역의 업종별 외국 직접 투자

(%)

	연변자치주	나진·선봉	연해지방
농림업	5	1	0.1
광업	0	0	5
자원가공업	74	6	26
경공업		1	0.4
수송업	0	11	9
통신업	0	17	15
호텔·부동산업	12	36	27
무역업	9	3	16
기타		25	2
합계	100	100	100
투자기업수	680	113	1,232

자료: UNDP Tumen Secretariat(2000. 3), *Trade and Investment Synergies in the Tumen Region*, prepared Geoff Wright for TREDa Advocacy Workshop 2000.

주: 1998년까지의 총투자액에 대한 비중임.

업은 주로 목재 가공과 식품 가공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두만강 지역에 투자한 주요 이유로는 저렴한 노동

력을 이용한 생산 비용 절감, 자연 자원의 이용, 지리적 인접성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는 연해지방에 집중되

〈표 3〉 두만강 지역의 국가별 투자

(%)

	연변자치주	나진·선봉	연해지방
한국	53	0	25
일본	11	9	19
홍콩	14	32	0
말레이시아	9	0	0
중국	-	23	2
미국	13	1 (한국계 미국인)	26
러시아		2	1
북한		-	0
상가포르		1	10
태국		17	0
영국		0.6	2
기타 유럽 지역		14	9
기타		0.4	7
합계	100	100	100

자료: 전계서.

주: 1998년까지의 총투자액에 대한 비중임.

어 있는데, 주요 투자 분야는 음료 생산과 무역업 등이다. 미국 가운데서도 워싱턴주 등의 서해안 지역이 연해지방과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두만강 지역내 국가에서는 중국이 나진·선봉에의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중국: 연변자치주²⁾

연변자치주에는 1984년에 최초의 외자 기업이 설립되어 1990년까지 총 44 개사의 외자 기업이 투자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1992년에 훈춘시가 '변경 개방시'로서 개방되었고, 1993년에 '훈춘 변경 경제 합작구'가 건설됨에 따라 외자 유치에 본격화되었다. 1996~97년간에 2.3억 달러의 외자가 유치되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외자

유치에 힘입어, 총고정자산 투자액 가운데 민간 부문(외자 기업 포함)의 비중은 1994년의 24.1%에서 1997년에는 46.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동아시아 통화 위기로 인한 경제 부진, 특히 한국의 경제 침체 영향으로 외자 유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1998년의 투자 실행액은 1997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9년 9월까지의 투자 계약 누계액은 5.8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4.8억 달러가 실제로 투자 실행되었다.

외자의 주요 투자 분야는 목재 가공, 섬유·의복, 식품 가공, 임산물, 목축, 관광, 서비스 부문 등 연변자치주의 중심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1999년 10월까지 투자 계약 누계액 가운데, 제조업 분야가 65.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외자의 주요 투자 동

〈표 4〉 연변자치주의 총고정자산 투자

(단위: 중국 인민폐 백만 원, %)

	1994		1997	
	고정 자산 투자액	비율	고정 자산 투자액	비율
국유 기업	2,059	65.9	1,439	43.7
집체 기업	310	9.9	335	10.2
민간 기업 (외자 기업)	754 (65)	24.4 (2.1)	1,520 (1,034)	46.1 (31.4)
합 계	3,123	100.0	3,295	100.0

자료: 연변통계연감(1998).

2) 연변자치주의 외자 유치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IDO(1998), *China's Tumen River Area Investment Guide: Yanbian/Hunchun '98*를 참조.

〈표 5〉 연변자치주의 투자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4 누계	1995	1996	1997	1998	1999.1~9	누계
투자 계약액	125.4	167.1	110.3	87.3	64.1	60.0	580
투자 실행액	103.8	78.3	133.9	94.5	46.3	25.0	480

자료: 1) 투자 계약액 가운데, 1994년까지의 누계는 UNIDO, *Yanbian : A special guide on the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 95*, 1995년 통계는 「吉林統計年鑑 1996」, 1996년 이후와 누계는 연변자치주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자료와 관련 담당자의 전언.

2) 투자 실행액 가운데, 1997년까지 통계는 UNIDO, *China's Tumen River Area Investment Guide 98*, 1998년 통계는 연변자치주 통계국(1999. 3), 「98年 國民經濟 및 社會 發展 統計」, 1999년 1~9월 및 누계는 연변자치주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자료와 관련 담당자의 전언.

기가 연변자치주의 자연 자원이나 저렴한 임금·토지 비용으 이용하여 가공 수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음식·오락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총 투자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

며, 농림 축산 분야는 8.7%를 점하고 있다.

외국 투자 기업은 1999년 9월까지 총 1,274 개사로, 이 가운데 704 개사가 퇴출하였거나 국내 기업으로 전환하여 현재는 570

〈표 6〉 연변자치주의 업종별 외자 유치(1999년 10월 현재 누계)

(단위: 건, 백만 달러, %)

	건수	투자 계약액	비율		
			농림업	공업	
투자 누계	579	580.28	100.0		
농림목업	36	50.49	8.7		
제조업	합계	435	379.11	65.3	100.0
	목재 가공	113	123.47	21.3	32.6
	섬유·의복·피복	68	108.30	18.7	28.6
	식품·음료	83	53.52	9.2	14.1
	석유·화학 제품	32	23.31	4.0	6.1
	비금속광물제품	25	16.09	2.8	4.2
	제약	12	11.15	1.9	2.9
	교통 운수 설비	12	11.13	1.9	2.9
	프라스틱	16	7.72	1.3	2.0
	금속 제품	12	7.52	1.3	2.0
	전기·전자	19	5.56	1.0	1.5
	기계	12	3.97	0.7	1.0
	기타	31	7.37	1.3	1.9
음식업	33	10.20	1.8		
오락 서비스	27	55.91	9.6		

자료: 연변자치주 대외무역경제합작국.

개사가 설립되어 있다.³⁾

주요 투자국은 한국, 홍콩, 일본 등이며, 이 가운데 한국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⁴⁾ 한국 정부의 연도별 對연변 투자 허가를 합산하면, 1998년까지 총 689 건의 3.8억 달러의 투자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366 개사가 퇴출하였거나 전환·합병하여 1996년 6월까지 총 323 개사의 한국 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투자 계약액 3.2억 달러 가운데 2.2억 달러가 실행되었다. 한국 투자 기업의 투자 분야는 1차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며, 특히 공업 분야가 68%를 점하고 있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식품, 방직·의복, 목재 가공, 플라스틱 제품, 전기·전자, 관광, 오락 서비스 등이다.

일본의 투자 기업은 1999년 9월 현재 66 개사로서, 주로 식품과 목재 가공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1996~98

년)의 투자 계약액은 2,302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투자 건수는 적지만 1997년에 수력 발전과 목재 등의 2개 부문에 3,724만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998년에 담배 가공 분야 등에 1,428만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외국 투자가 확대되어 공업 총생산에 점하는 외국 투자 기업의 공업 생산 비중은 1993년 2.9%에서 1997년에는 13.4%로 늘어났으며, 1999년 1 8월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52.9%가 늘어나 17.3%까지 증가하였다. 외자 기업은 연변자치주의 수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9년 1 9월의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액은 5,927만 달러에 달해 총수출액의 50.7%를 점하고 있다.⁵⁾

〈표 7〉 한국의 對연변자치주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8	1990~98 ¹⁾	1998 누계 ²⁾	1999. 1~6	1999. 6 현재
건수	3	39	124	90	72	689		38	323
투자 계약액	0.38	25.10	71.80	69.37	35.10	383.73	284.90	34.75	319.65
투자 실행액	0.38	3.07	35.17	84.06	15.43	233.34	214.33	8.30	222.63

자료: 1) 1990~98년까지는 한국은행, 「해외 투자 현지 법인 현황」.

2) 1998년 누계와 1999년 통계는 연변자치주 대외무역경제합작국 자료 인용.

3) 1999년 9월, 연변조선자치주 대외무역경제합작국의 관련 담당자 전언.

4) 한국 기업의 연변자치주 투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燦雨(1999, 12), "中國延邊朝鮮自治州의經濟發展と韓國投資의 役割", ERINA REPORT, vol.31, pp. 1~11 참조.

5) 연변인민방송 보도(1999. 11.17), <http://www-yj.jl.cninfo.net/ynnew/kybgb/1999/11/17>.

북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⁶⁾

1998년까지 나진·선봉에의 외국 투자 실적은 8,8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⁷⁾ 외자의 주요 투자 분야는 통신, 호텔 등의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운수·건설·관광 부문도 투자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북한의 「외국 투자 은행법」(1993년 제정)에 기초하여 네덜란드의 ING은행과 홍콩의 페레그린은행이 합병은행을 설립하였으나, 1998년까지 경영 부진을 이유로 나진·선봉지대에서 퇴출하였다. 반면에 제조업 부

문은 4% 미만의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 들어와서 상반기에 새롭게 등록된 외자 기업 38 개사 가운데 32 개사는 중소 규모의 제조업 관련 기업으로, 외자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수산물, 한방 약제, 목재, 섬유 등의 가공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투자 국가별로 살펴보면, 1998년 중반까지는 중국 기업이 63 개사로서 전체 외자 기업 113 개사의 56%를 점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상업 분야에의 투자가 많아 투자액은 전체의 20% 내외에 불과하다. 홍콩은 기업

〈표 8〉 나진 선봉의 업종별 외자 유치(1997년말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농림수산업	270.0	4.7	건설·서비스업	5,322.3	91.9
- 농업	6.3	0.1	- 통신	1,000.0	17.3
- 임업	65.1	1.1	- 호텔	819.4	14.1
- 수산업	198.6	3.4	- 건설·부동산	815.0	14.1
제조업	199.7	3.4	- 금융	760.0	13.1
- 식품가공	11.5	0.2	- 운수	654.3	11.3
- 요업	61.2	1.1	- 관광·서비스	441.7	7.6
- 석유가공	74.5	1.3	- 유통·소매	112.6	1.9
- 섬유가공	0.0	0.0	- 무역	69.3	1.2
- 수송기기	2.0	0.0	- 기타	650.0	11.2
- 기타	50.5	0.9			
합계				5,792.0	100.0

자료: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1998. 8).

6) 나진·선봉의 투자 환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UNDP, UNIDO(1999. 6), *DPRKorea's Investment & Business Guide '98* 참조.

7) 對外經濟協力推進委員會の發表(1998. 8)에 의하면, 1997년까지의 외자 유치액은 계약 기준으로는 7억 5,085만 달러, 실적 기준은 5,792만 달러이다(TRADP(1999. 5), *Tumen Update*, Issue 1, p. 10).

의 수는 전체 외자 기업의 10% 미만으로 적지만, 투자액은 전체의 35%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는 홍콩 엠페러그룹(Emperor Group)의 카지노 호텔 투자(제1단계의 1997~2000년 동안에 총 6,000만 달러 투자 계획) 등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호텔의 카지노 영업은 1999년 7월에 일부 개장하였다. 태국의 록슬리사(Loxley Pacific Co. Ltd.)는 1997년부터 통신 분야에 투자(계약액 2,800만 달러)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1998년까지 약 20 개사가 관광 호텔, 음식, 수산물 가공, 목재 가공 등의 분야에 총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 기업은 나진·선봉지대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투자

기업으로 등록된 경우는 아직까지 1 건도 없는 상태이다.

러시아: 연해지방

1998년까지 연해지방에 투자한 외자는 4.4억 달러로서, 주요 투자 분야는 통신, 운수, 서비스 분야이다.⁸⁾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투자 총액의 26.6%로 제1위이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이 25.3%, 일본 18.7%, 싱가포르 9.6% 등의 순이다.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에는 1999년 1월 현재 총 224개사의 외국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통신, 목재·건축, 무

<표 9> 연해지방의 업종별 외자 유치(1997년말 누계)

(단위: 백만 달러, %)

	금액	비율
투자 실행액	383.9	100.0
광업	19.9	5.2
제조업	100.7	26.2
- 식품 가공	72.0	18.8
- 목재 가공	23.3	6.1
- 기타	5.4	1.4
서비스업	263.0	68.5
- 공공시설·서비스	98.9	25.8
- 통신	56.6	14.8
- 상업	52.4	13.6
- 운수	33.7	8.8
- 무역	9.1	2.4
- 기타	12.3	3.2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Russian Federation(1997),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Russia in 1997*.

8) 北海道新聞情報研究所(1999. 9), 「沿海地方の外國企業進出状況調査」, p. 13.

역, 어업 분야 등으로, 연해지방에서의 외자 기업 총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은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중국 등이다.⁹⁾

두만강 지역 각국의 투자 유치 정책, 투자 환경

중국: 연변자치주

○ 우대 제도¹⁰⁾

연변자치주 정부는 외국 투자에 관해 중국의 일반적인 우대 정책에다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 제조업 투자 기업의 소득세는 12~15%로 연해지방이나 상해 경제 특구의 15%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 지불한 소득세는 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이윤 발생 후 6년부터 9년간 연변 정부의 재정에서 반환해준다.¹¹⁾
- 훈춘에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모든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는 소득세를 이윤 발생 후 3년간(여타 지역은 2년간) 면세해준다.

- 토지 사용료는 제조업용의 경우 50년간 17~20/m²(토지 개발 비용 포함)로 서나진·선봉지대보다 저렴하고, 일괄 지불할 경우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20~70%를 반환해준다.

더욱이, 그동안 외국 투자 기업의 불만이 높았던 각종 행정 요금은 1998년 5월부터 개선되었다. 다시 말해, 각 항목을 통합·간소화하였으며, 요금 기준도 투명화하고 일부 요금은 절반으로 삭감하였다.

○ 투자 환경¹²⁾

연변은 두만강 지역 가운데서도 양호한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투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법률과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변경이 빈번하다.

9)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의 투자 환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Nakhodka Free Economic Zone Administrative Committee, *A Business Guide of Nakhodka and the Free Economic Zone*, 1998~1999년판 참조.

10) 연변자치주의 우대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IDO(1998), *China's Tumen River Area Investment Guide : Yanbian/Hunchun '98*, pp. 12~17 참조.

11) 총투자액이 200만~500만 달러인 경우에는 6년간, 500만~1,000만 달러는 7년간, 1,000만~5,000만 달러는 8년간, 5,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9년간에 걸쳐 소득세를 환불해준다.

12) 나진·선봉지대의 투자 환경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UNDP·UNIDO(1999. 6), *DPRKorea's Investment & Business Guide '98*, pp. 12~18 참조.

- 행정 규제와 조례가 상급 기관으로부터 하급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행정 요금 시스템의 개혁이 실시 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높고 미리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공업용 전력의 최종 수요자 요금은 약 0.6 元/kWh인데, 이것은 생산자 요금의 0.2 元/kWh에 다양한 행정 요금이 부가된 것으로서 처음 요금의 3 배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배수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 우대 제도

북한의 외자 기업에 관한 우대 조치는 요금 면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우위에 있다.

- 기업 소득세는 14%이며 선진 기술이나 인프라, 자원 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 발생 연도부터 3 년간 면세해주고, 그 이후 2 년간 50% 면세해준다.
- 관세도 가공 수출을 위한 수입이나,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 중계 수송 화물,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건설을 위

한 물자, 나진·선봉지대에서의 수출품 등에 대해서는 면세해주고 있다.

- 수입 상품의 관세율도 최고 18%(담배, 술, 자동차 등)로써,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 영업세도 3 9%의 범위 이내로 중국의 증치세 17%보다 낮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는 토지 개발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5 45 달러/m²로서, 연변자치주 17~20 달러/m²의 2 배 수준이다. 이것은 외국 기업이 토지를 임대할 경우, 인프라 비용(토지 정리, 도로, 급배수, 전기, 전화, 난방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원주민 이주를 위한 보상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 환경

나진·선봉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 기업은 이 지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법률상에는 투자 수속 시간이 50 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지역 파트너와의 협의가 복잡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
- 중앙 정부의 허가를 얻기까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외자 기업은 나진·선봉지대당국의 노동력 알선 기관을 통해 반드시 노동력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 나진·선봉지대로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잠재적으로 중요한 투자가인 한국인(교포 포함)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연해지방

○ 우대 제도¹³⁾

외국 기업의 투자에 관한 법률인 「연해지방에서의 투자 활동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 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타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세율이 높고 변경이 심하며, 형식도 복잡하다. 예를 들면, 소득세는 35%,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20%, 연금과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을 포함한 고용주세 부담은 급료 총액의 39%에 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세금을 전부 지불하면 기업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투자자의 외자에 관한 우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조선, 식품 가공, 소비품 생산, 의약품, 주택 건설 관련 기업의 소득세는 2년간 면제해주고, 3년째는 50%, 4년째는 25%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핵심 부문의 판매 비율이 최초 2년까지 70%, 그 이후는 90%에 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투자 금액의 회수 기간 중에는 소득세의 연해지방 할당분의 50%를 3년간 감면해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혜택이 없다.
- 리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최초 2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준다.
- 주요 기계와 장비 등의 자본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수입량에 따라 감면해주고, 가공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원자재에 부가해온 관세는 연해지방 재정에서 반환해준다.

○ 투자 환경

연해지방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해지방 정부로서도 외자 유치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연해지방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 기

13) KOTRA(1998. 12), 「러시아 극동 지역의 투자 환경」, 내부 자료.

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 법률이 빈번하게 변경되고 우대 조치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은행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 세율이 높고 복잡하며 불안정하다.
- 무역 측면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이 모스크바 지역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¹⁴⁾

○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

연해지방에는 1990년에 설립된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가 있다. 두만강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 면적은 4,579 km², 인구는 약 22만 명으로 4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거대한 지역이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을 무관세 자유무역이 가능한 경제특구로 허가하고 있지만, 실제 필요한 경제 관련 법률은 아직 대통령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출한 수많은 외자 기업이 퇴출하였고, 현재는 나호트카텔레콤(Nakhodka Telecom)이나 로코텔(Rokotel), 보스토치니 국제컨테이너서비스(Vostochny International Container Service) 등의 통신, 운수 관련 외자 기업 몇 개만이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자유경제지대 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호트카 자유경제지대 행정위원회(ACNFEZ)은 지금까지 2 개의 공업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다. 하나는 러시아·한국공업단지(RKIC)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평양공업단지이다. 1992년부터 추진해온 러시아·한국공업단지 건설안은 1995년 5월에 양국 정부간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방의회로부터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인프라 시설에 관한 토의만 이루어졌을 뿐, 산업 분야에서의 기업 유치안 등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잠재적 투자 분야

중국: 연변자치주

연변자치주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연변자치주는 전략적으로 수출 지향형의 제조업과 가공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변자치주와 한반도, 러시아, 일본 등을 연결하는 수송 회랑이 전제가 된다. 연변자치주에서의 잠재적 투자 분야로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다.

14) 연해지방에서 무역 부문의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통해 수입하여 연해지방에 보내진 물품이 극동 지역 항구를 통해 수입한 경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다.

〈표 10〉 연변자치주의 투자 환경 평가

장 점	단 점
· 중국 다른 지역에 비해 러시아, 한반도, 일본과 근접	· 중국의 국내 주요 시장 및 동북 3성의 항구와 원거리에 위치
· 조선족의 존재: 1997년 지역 총인구의 39% 차지 · 연변과 한국과의 무역 투자는 90년대 10년간 급성장 · 연변과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	· 내륙지로서, 동해 및 일본해 항구와의 효율적 근접이 미 발달
· 저렴한 노동력과 숙련된 기술력 · 70~80 달러/월 정도의 급여 수준으로도 중국 남부 연안 지역과 동일한 생산력 조건을 구비	· 부품 제조 등 지원 산업이 미 발달, · 국내 은행 시스템도 취약
· 풍부한 자연 자원: 물, 목재, 한방약 원료 등이 풍부	· 국경 지역 도시의 주거 관광 서비스 시설이 정비 부진
· 관광 자원: 백두산과 3개국에 접해 있는 훈춘시 방천을 관광지로 개발 가능	· 연변으로의 국제 통로가 미 발달 · 특히 연변공항은 국내 운항에 한정

- 목재 가공: 러시아로부터 목재 자원을 수입이 가능하다.
- 식품 가공: 버섯, 야채, 과일 등의 가공 품은 한국과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 잠재성이 있다.
- 제약: 백두산의 약초를 이용한 한방약 제조업의 근대화가 필요하다.
- 방직·의류: 풍부한 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다.
- 지원 산업: 각종 부품 제조업, 운송업, 포장업, 인쇄업, 건축 자재업 등은 공업 발전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업: 백두산 관광은 한국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관광 시설과 가까운 곳의 도로는 개선이 필요하고, 겨울철 관광 상품 개발이 과제이다.

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나진·선봉지대는 전략적으로 수송, 관광, 수출 지향형 가공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수송: 두만강 지역의 경제 성장을 기초로 한 이 지역의 회랑(corridor) 또는 통로(gateway) 역할을 위해 도로 및 철도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 관광: 현지의 자연 자원을 이용한 관광 서비스는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개선, 연길공항의 국제 공항화, 연길~나진간의 헬리콥터 연결, 호텔 등의 관광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며, 겨울철 관광 상품 개발도 과

〈표 11〉 나진·선봉지대의 투자 환경 평가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진항: 전반적으로 양호 - 연간 화물 처리 능력: 400만 톤 -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이나 포시에트항에 비해 우위적 위치, 항만 면적에도 여유 - 철도는 러시아의 핫산가 연결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미정비: 도로 조건 열악과 철도 시설 개선 필요 - 용수와 전력 공급은 장래의 산업 개발과 주민들 수요 충족에 불충분한 상태 -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의료 주택 등 사회 인프라가 미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자원: 해안의 훌륭한 모래사장과 칠보산 등 - 해수욕, 낚시, 해산물 요리 관광 유망 - 칠보산 관광: 나진항에서 약 145 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여건 불리: 국내 시장과의 원거리로 국내 자원 활용의 어려움 - 수요도 미발달되어 나진 선봉에서의 제조업 발전에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노동력 - 미숙련공 급료는 80 달러/월 정도이나, 추가적인 사회보장비가 없음 - 모든 노동자들이 11 년간의 의무 교육을 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경제 시스템의 미완비 -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자원 풍부: 해산물과 임업 제품 (송이 버섯, 한방약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로의 접근 시설과 관광 자원 개발이 미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측면에서 우대 조치: 두만강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산업과 사업 인프라가 불충분 (포장, 품질 관리, 통신 등)

제이다.

- 수출 지향형 가공업: 해산물, 한방약, 목재, 도자기, 연와, 의류, 민속공예품 등의 가공 수출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는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도 발전 가능하다.

러시아: 연해지방

연해지방의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연해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연해지방의 남부 지역은 수송 기지이다. 나호트카와 블라디보스톡은 창고와


물류 기능 개선을 통해 훌륭한 철도-항만 연결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루비노항과 포시에트항은 근대화 요구된다.

- 수산물 가공: 핫산, 나호트카
- 목재 가공: 나호트카
- 선박 수리(나호트카)와 어선의 현대화 (핫산)
- 인프라 개선: 용수 공급 시스템(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전력(나호트카), 장기적으로는 사할린 가스 파이프 라인
- 지형적 기술(local technological skills)을 활용한 산업 발전: 군수 산업 경험
- 농업: 목축, 콩제품
- 관광: 한국 동해안과 연해지방을 연결

〈표 12〉 연해지방의 투자 환경 평가

장점	단점
·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노동력, 교육 수준 양호	· 은행 시스템의 미발달과 자금 부족
· 국제적인 수송 네트워크: 항만(보스토치니, 나호트카, 블라디보스톡)과 철도망, 국제 공항 등의 다양한 수송망 구비로 훌륭한 국제 수송 기지 조건 구비 · 유럽, 중앙아시아, 중국 동북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북미 지역과도 효과적 연결 가능	· 소프트 인프라가 비교적 취약 · 세금, 법률 등
· 풍부한 자연 자원: 해산물, 목재, 석탄, 광산물 등	· 생활 여건 열악 · 범죄, 의료, 물, 폐기물 처리 등
· 관광 자원: 블라디보스톡과 같은 역사적 도시와 자연이 보존된 지역	· 지리적 여건 불리 · 국내 주요 시장과 원거리에 위치

한 카페리호 운항,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호텔과 박물관 및 기타 관광지 개발, 핫산의 생태 관광 등

이 지역 3개국은 잠재적인 투자 측면에서 보면 상호 보완성이 명확하다. 따라서 현재의 각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공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두만강 지역 3개국의 잠재적 투자 분야와 과제

〈표 13〉은 두만강 지역 3개국의 잠재적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3〉 두만강 지역 3국의 잠재적 투자 분야

연변자치주	나진·선봉지대	연해지방
· 수출 지향형 가공업 · 목재 가공업 · 식품 가공업 · 한방약 제조업 · 섬유·의류 제조업 · 관광업	· 통로(gateway) · 중계 수송 · 관광업 · 어업·해산물 가공업 · 수출 지향형 가공업	· 통로 · 허브 기능 · 자원 가공 산업 · 해산물 및 목재 가공업 · 농업 · 기술 산업 · 선박 수리업 · 첨단기술산업 · 관광업